

[보도자료] 쿠팡, 수박 창고 대방출 “장마 전 미리 수확한 ‘꿀수박’ 맛보세요”

2026. 7. 10.



- 쿠팡, 본격적인 장마철 앞두고 미리 비축한 고당도 수박 130여 톤 규모 판매 개시
- ‘AI 선별시스템’ 적용 품종 확대 수박부터 감귤 참외 토마토 복숭아까지

2026. 07. 10. 서울 - 쿠팡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약 130여 톤의 고당도 수박 판매에 나선다.

이번 기획전에서 선보이는 상품은 ‘당도선별 11브릭스 수박(6~9kg 이상)’과 ‘햇사레 다올찬 꿀수박(7~9kg)’ 등이다. 평균 당도는 11브릭스이며, 상품에 따라 최대 12브릭스의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고객은 수박 한 통 당 평균 2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국내 대표 고품질 수박 특산지인 전북 고창과 충북 음성 지역의 물량을 대량 확보했다. 전북 고창 수박은 청정 황토와 해풍 속에서 자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며, 충북 음성 수박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당도가 높고 이름처럼 속이 짝 차고 단단한 ‘다올찬’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특히 쿠팡은 장마철에도 고품질의 수박을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장마 전 사전 비축을 시도했다. 수박은 수확 직전 단수 과정을 통해 당도를 높이는데, 장마철에는 과도한 수분 흡수로 당도가 떨어지거나, 물을 머금은 채 폭염이 오면 과육이 무르기 쉽다. 이에, 쿠팡은 우수 산지에서 제때 수확해 검품을 마친 고품질 수박을 물류센터에 선제적으로 비축, 장마 기간에 맞춰 공급한다.

고품질 수박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쿠팡의 수박 매입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기준 5000톤을 상회했던 매입량은 올해 6월 기준 5700톤을 돌파했다. 올해 연간 총 매입량은 8600여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쿠팡은 과일의 맛과 신선도를 한층 더 높이고자 ‘AI 선별시스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AI 선별기는 비파괴 광학 센서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과일의 당도와 수분 함량, 내부 상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기다. 기존 감귤·참외·토마토에 이어 올해는 수박과 복숭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쿠팡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장마 전 사전 비축 노하우로 아삭하고 달콤한 고품질 수박을 엄선했다”며, “AI 선별 기술까지 더해 품질을 한층 높인 만큼 장마철에도 고당도 수박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